

농어촌公, 국가기록관리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 증진 등 기여 인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9일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023년 국가기록관리 유공’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의 115년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정보자산으로 활용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인식 제고에 기여한 민간·공공분야 유공자를 발굴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가기록관리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31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시 추천된 모범사례 ▲기록관리 업무 및 제도개선 실적 등 3개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공사는 우수한 성적을 득하여 국립공원공단,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기관평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공사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시스템개선 사업’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이관 프로세스 재정비 및 기록물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기록관리체계 재정비로 안전한 보존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가기록관리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기록유산 보존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다시금 느끼며 보다 안정적인 기록관리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국민과 함께 기록유산을 형성하기 위해 1908년 수리조합부터 공사 전신에 관한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온·오프라인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총무부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담당자	차 장	현화경 (061-338-6048)